

KC2006-2-MINI에서 윈도 기본 글꼴

Nobody

2006년 12월 3일

차 례

1 기본 정보	1
2 글꼴의 예시	2
3 글꼴 사용	2
부록	2
A breakttc를 이용하여 폰트 잘라내기	2
B pdflatex의 pk 비트맵 폰트 생성	3

1 기본 정보

이것은 KC2006-2(-MINI) 기본설치 상태에서 아무런 추가설치도 하지 않고 윈도 기본 글꼴을 사용하는 시험입니다.

latex -> dvipdfmx 루트로 컴파일하려 할 때. 이 때는 아무런 추가 조치가 필요없습니다. 굵은 글꼴은 *fakebold* 처리됩니다.

latex -> dvips -> ps2pdf 루트로 컴파일하려 할 때.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pdflatex으로 컴파일하려 할 때. 이 경우에는 다음 네 개의 폰트가 이용가능해야 합니다.

- ✍ MSBatang.ttf
- ✍ MSGungseo.ttf
- ✍ MSGulim.ttf
- ✍ MSDotum.ttf

이들은 윈도 시스템의 *batang.ttc*와 *gulim.ttf*에서 *breakttc*로 각각을 쪼개어낸 것으로,

```
%HOME%/texmf/fonts/truetype/Winfonts
```

에 넣어두고 *mktexlsr*하여 둡니다. 부록 A 참고. 이 폰트들은 *free*가 아니기 때문에 KC2006-2(-MINI)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즉, 기본 설치만으로는 이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pdflatex으로는 “굵은 글꼴(Bold)”이나 “92% 장평 글자” 및 “사체(기울임)”를 native truetype으로 식자할 수 없습니다.¹

¹pk 비트맵 글꼴이 사용됨.

2 글꼴의 예시

tex fontname	Windows name	예시
kxbt	바탕(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kxgt	굴림(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kxdt	돋움(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kxgs	궁서(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dvipdfmx 루트로 pdf를 만드는 경우에만, 이른바 ‘92% 장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평 [92%]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말뚝박기 망까지 말타기 놀다보면 하루는 너무나 짧아 어색한 표정의 낡은 사진을 보면 잊지못할 내 어린날의 보물들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말뚝박기 망까지 말타기 놀다보면 하루는 너무나 짧아

장평 [100%]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말뚝박기 망까지 말타기 놀다보면 하루는 너무나 짧아 어색한 표정의 낡은 사진을 보면 잊지못할 내 어린날의 보물들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말뚝박기 망까지 말타기 놀다보면 하루는 너무나 짧아

3 글꼴 사용

KC2006+oblivoir 문서에서,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
\documentclass{oblivoir}

\SelectHfonts{kxbt,kxgt,kxdt}{*}
\ifpdf
  \pdfmapfile{+mskttfonts-pdftex.map}
\fi
```

부록 A breakttc를 이용하여 폰트 잘라내기

비록 dvipdfmx에 비해서 약간의 제한이 있지만 pdf_latex에서도 윈도 기본 글꼴 트루타입을 사용하기 위해서 다음 절차가 필요하다.

- (1) **breakttc**를 다운로드받아서, **breakttc.exe**를 실행 가능한 위치에 둔다.

(2) 적당한 임시 작업 폴더로 윈도 Fonts 폴더의 `batang.ttc`와 `gulim.ttc`를 복사.

(3) 다음 명령을 순서대로 실행한다.

```
#> breakttc batang.ttc
#> ren FONT00.ttf MSBatang.ttf
#> ren FONT02.ttf MSGungseo.ttf
#> breakttc gulim.ttc
#> ren FONT00.ttf MSGulim.ttf
#> ren FONT02.ttf MSDotum.ttf
```

`batang.ttc`에 대하여 `breakttc`를 실행하면 `FONT00~FONT03`, 네 개의 `ttf`가 나오는데 이 각각이 바탕, 바탕체, 궁서, 궁서체이다. `gulim.ttc`에서도 `FONT00~FONT03`이 나오는데 각각 굴림, 굴림체, 돋움, 돋움체이다. ‘바탕’과 ‘바탕체’는 영문자와 기호문자가 반각이나 전각이나의 차이인데 어차피 우리는 그 글자들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므로 어느 것이든 상관없지만 여기서는 ‘바탕’과 ‘궁서’를 채택하였다.

주의할 점은, `batang.ttc`든 `gulim.ttc`든 모두 `FONT00.ttf`하는 식으로 이름이 겹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batang.ttc`에서 얻어진 잘려나온 폰트를 미리 적당한 이름으로 바꾸어두고 그 다음에 `gulim.ttc`에 대해서 같은 작업을 반복하도록 해야 한다.

`pdfLATEX`에서 `trivcj`를 사용하기 위하여 `MSMincho` 등을 잘라내려 할 때도 비슷한 절차를 거치면 된다. 만들어진 `ttf`를 `TEX`에서만 사용할 것이므로 사용자의 `local texmf tree` 아래에 가져다두고 `mktexlsr`을 실행한다.

부록 B pdflatex의 pk 비트맵 폰트 생성

`pk`를 생성해야 하는 경우는 `pdflatex`으로 사체, 볼드체 등을 식자하려 할 때이다. `dvipdfmx`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문제를 전혀 만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가 사용하려 하는 폰트가 하필이면 트루타입이기 때문에 생긴 문제로서, `type 1` 폰트를 쓰는 경우라면 `pdflatex`이든 `dvipdfmx`든 아무런 문제를 겪지 않을 것이다.

기본 설치된 `KC2006-2-MINI`의 경우 `pk` 비트맵 생성의 문제는 없다. 다만 작업 폴더 이름에 공백(`space`)이 있거나 한글 폴더 이름이 포함된 경우에는 `pk` 생성에 실패하는데, 그 이유는 `mktexpk` 스크립트가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이미 `pk`가 만들어져 있다면 문제없다.

그러므로 혹시 `pk` 생성에 문제가 있으면 폴더를 이동해서 작업하면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TeX` 작업은 공백없는 영문 이름의 폴더에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